



인터넷 정보접근 향상의 꿈,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이어가

IT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을 국경을 넘나들며 마음에 드는 옷을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인터넷공간에 집을 지으며 의식주의 원초적인 본능까지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더해갈수록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누가 더 빨리 인터넷에 접근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가가 미래 사회의 적응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희망의 날개 달아준 한글인터넷주소

이른바 정보화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복잡한 숫자로 이루어져있던 IP주소가 사람들에게 좀더 친숙한 도메인으로 체계화되어 보급된 이래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곧 다른 산업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의 눈부신 부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어도메인을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영어를 자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인터넷 접근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비 영어권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도태로 이어졌다.

영어를 잘 아는 사람들과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괴리만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어도메인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았다. 컴퓨터와 화선이 있어도 정보접근에 무리를 겪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자국어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 개발이 끝없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그 첫 모델이 탄생, 사람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 영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던 국민들에게 한글인터넷주소가 희망의 날개가 되어 준 것이다. 인터넷에 접근하는 기본 단계인 인터넷주소를 한글로 만들으로써 IT기술로 이루는 꿈의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글인터넷주소는 나아가 자국어를 인터넷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국어인터넷주소 응용·발전되어 자국어인터넷주소 시스템 패키지를 도입한 세계 95개국에서는 자국어인터넷주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 유관산업이 동반 성장했고 전 세계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발전,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보의 바다로 인도하는 '지식의 통로'

자국어인터넷주소는 단지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에서 소외되어 다양한 IT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계층까지 인터넷 정보의 바다로 인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인터넷주소 보급은 나이, 학력, 거주 지역을 초월하여 범 국가적으로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계층간 '정보격차'를 크게 해소,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국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한한 정보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강한 파급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한글인터넷주소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유관산업이 성장한 사례가 많아졌다.

자국어인터넷주소로 이어나가는 꿈

지난 1999년 한글인터넷주소 상용화와 급속한 대중화에 힘입어 불과 3년 만인 2002년, 우리나라의 정보접근 지수가 세계 4위로 뛰어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정보접근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IT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선진사회의 진입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이룬 꿈의 기술을 나누어주고자 한다. IT선진국으로서 IT기술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등을 지원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전 세계 각 국가에 뿌리 내림으로써 단 기간 내에 국가 정보화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각 국가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영어 가능자와 영어를 모

르는 국민들 사이에 정보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비 영어권의 선진국에서도 자국어인터넷주소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홈 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 선진국들이 지닌 앞선 기술도 결국은 자유롭게 정보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IT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들도 궁극적으로는 비 영어권의 인터넷 보급률이 늘어나 시장이 더 성장해야만 그 앞선 기술을 수출할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자국어인터넷주소의 빠른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한글인터넷주소가 이뤄낸 인터넷 정보접근 향상의 꿈, 자국어인터넷주소가 그 뒤를 이어나갈 것이다. ■

